

**보도자료**

2013년 2월 8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 윤혜주 과장(☎710-6600)  
녹색인증제도과 정삼영 연구관(☎710-6620) sychung@kcc.go.kr**ITU 기후변화 작업반에 국내 그린ICT 전문가 진출****- 기후변화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SG5(환경 및 기후변화 표준화 연구반)에서 김용운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후변화 표준화 작업반」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국제전기통신 표준화총회(WTSA-12)에서 정삼영연구관(국립전파연구원)이 「환경 및 기후변화 표준화연구반」 부의장으로 진출한 데 이어, 이번 「기후변화 표준화 작업반」 의장단에 진출하였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관련 이슈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 반영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ICT 기술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연구'가 ITU의 정식보고서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로 ICT와 기후변화 연구결과가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된 것으로 ICT 기술이 사회 전반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유용한 기술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연구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SK텔레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 해 4월 ITU-T SG5 회의에 제출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ICT 기술을 활용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약 15%(1억1천만톤)에 해당하는 양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원격회의, 전자상거래, 전자 민원서비스, 스마트 정부, 실시간 내비게이션, 버스정보 시스템, e-화물운송시스템, 원격진료, 스마트워크 등 ICT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기후변화 핵심연구반의 의장단에 진출하고 국내 최초로 민관 공동 연구결과가 ITU 국제보고서로 채택되는 성과를냄으로써 ICT와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적 수준이 한단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끝.

## [ 주요 용어 정리 ]

- o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 o SG5(Study Group5) : 환경과 기후변화 연구반
- o WP(Working Party) : 기후변화 작업반
- o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
- o 14개 ICT 서비스 :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원격회의, 전자상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스마트 정부, 실시간 내비게이션, 버스정보 시스템, e-화물 운송시스템, 원격진료, 스마트워크 등
- o ITU 보고서 : UN 산하 ITU가 발간하는 연례 공식 보고서로 당해년도 주요 이슈 및 신기술 소개 형태의 보고서임(국내 기업 및 기관 발간 실적 없음)
  - ※ 본 보고서는 세계 최초로 국제기관이 인정한 “ICT 분야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및 효과산정” 사례 보고서이며, 200여개국 정부에 하드카피 송부, 800개 기관 및 단체에 소프트카피 배포 예정
- o ITU보고서에 담긴 주요내용 소개 : 국내에서 상용화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14개 분야의 ICT 서비스를 기반으로 활용 및 확대 보급 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를 산정하고, 2020년까지의 예상 감축량을 전망하는 국가 보고서 형태임. 보고서의 결론으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8억 1천만톤 중 약 1억 1천만톤의(약 15%)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본 보고서는 ITU에서 개발·승인된 L1410 방법론(ICT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적용한 첫 사례임.